

부산시, 1400억 투자해 ‘사람·동물 행복한 도시’ 만든다

(2029년까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관련 기반시설 24개 → 40개 확충
기업 성장 유도·문화확산 프로그램

부산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비전으로 한 ‘제1차(2025~2029)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산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 여건 및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시의 관련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번에 수립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기반 시설 구축 ▲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 3대 전략에 26



부산시청.

/부산시

개 추진과제를 포함해 2029년까지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첫 번째 전략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24개에서 40개로 확충한다.

전국 최대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을 비롯해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복합센터’ 건립 ▲반려동물 판 15분 도시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의

료 선진화를 위한 ‘대학 동물병원’ 건립 등이 포함돼있다.

두 번째 전략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부산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업 지원으로 비약적인 기업 성장을 유도한다.

산업의 외연 확대와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창업 지원,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성장기업지원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우수 인재군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최고 경영자 교육 등을 수행할 산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구직자 간 매칭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세 번째 전략은 ‘반려동물 문화확산 프로그램 강화’로, 2029년까지 프로그램을 2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산업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

부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동반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친화업소 발굴,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개발, 반려동물을 주제로 다양한 테마의 공감 산책로 조성, 민간 관광 기반 시설 유치를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양육가구 증가, 동물권 보호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융합돼 고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국비예산확보 상황실 설치

경남도는 서울본부에 ‘2025년 국비예산 확보 상황실’을 설치해 4일부터 정부예산안의 국회 최종 확정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회 대응 국비 상황실은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국비팀,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으로 구성했다.

경남도는 국비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증액사업 자료를 제공하고, 기획재정부 추가설명·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김해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부부당 ‘생애 총 25회’이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었다. 예컨대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각각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회 난임 시술 종류는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1000억 규모 폴리에틸렌 공장 유치

생산설비, 원재료·제품 탱크팜 신설
1만㎡ 부지… 오는 2026년 완공 목표

울산시가 SK피유코어(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설비와 원재료·제품 탱크팜(Tank Farm) 신설 공장을 유치했다.

울산시는 4일 시장실에서 ‘폴리에틸렌 생산설비 및 원재료·제품 탱크팜(Tank Farm)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리에틸렌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매트리스, 자동차 시트 등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틸렌 품의 중요한 원료다.

협약에 따라 SK피유코어(주)는 폴리에틸렌 생산설비와 원재료·제품 탱크팜 신설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신설 공장은 남구 용잠로 255 일원(울산공

장 및 인접 유휴부지 1만㎡)에 들어서며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공장 신설과 관련해 지역민을 우선 채용 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울산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번 신설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SK피유코어(주)의 이번 투자는 울산의 화학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 유치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담회.

/해남군

해남군, 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절임배추 생산시설 700개소 대상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말까지 관내 절임배추 생산시설 700개소를 대상으로 배추,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명품 해남절임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추진하며, 타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에 대한 여부 등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절임배추 생산업체 대상 원료관리, 위생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자관리 등 절임배추 생산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시, 지역대학과 동반성장 기반 마련

‘지역-대학협력 실무추진단’ 발족

포항시는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지역-대학협력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추진단장인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포스텍, 한동대, 선린대, 포항대 등 지역대학과 관련 부서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대학협력 실무추진단’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정부의 ‘글로벌대학 30’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변화한 대학지원 체계에 발맞춰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대학30과 RISE 체제를 주제로 변화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내했으며, 교육부 중심의 기존 하향식 대학지원 추진 방식이 아닌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포스텍과 한동대에서는 대학별 지역 협력 사업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역대학들이 포항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안사업과 관련해 지역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포항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과 대학 간의 사업 추진 전략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목포시,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 수상

국토부와 ‘도시재창조 한마당’ 개최

전남 목포시는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에서 균형발전 우수사례 지역특화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시는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1897 개

항문화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목포 근대문화투어리즘 1897 개항문화거리’라는 주제로 만호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시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보리마당사업)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후 원도심 지역자산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경주시

문무대왕배 RC 요트대회

경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봉황대 앞 광장에서 ‘2024 문무대왕배 RC(무선조종) 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주시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아라마린서비스가 주관한다.

대회는 ▲유소년(초등) ▲청소년(중·고등) ▲일반부(성인) 등 총 세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가장 빠른 시간 내 RC 요트로 완주해 각 부문별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겨 메달과 부상을 수상한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영양군

미혼 청년 ‘솔로탈출’ 참가자 모집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바쁜 일상과 만남의 기회가 적은 결혼 적령기 미혼 청년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영양에서 솔로탈출”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30일부터 1박 2일간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영양에서 솔로탈출”은 미혼 청년남녀 각 15명이 참여해 흥미로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